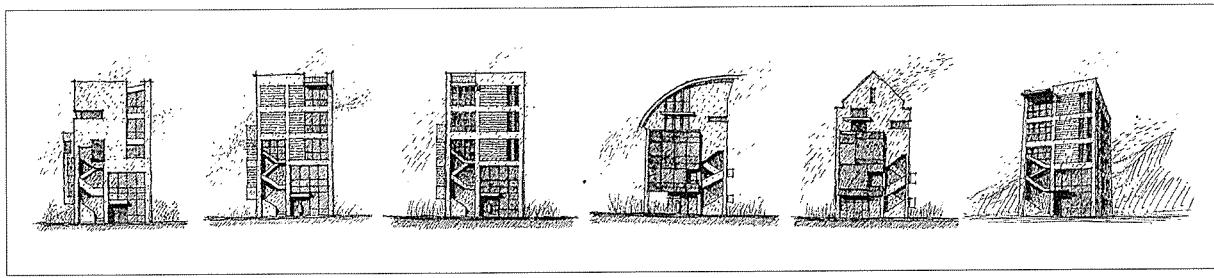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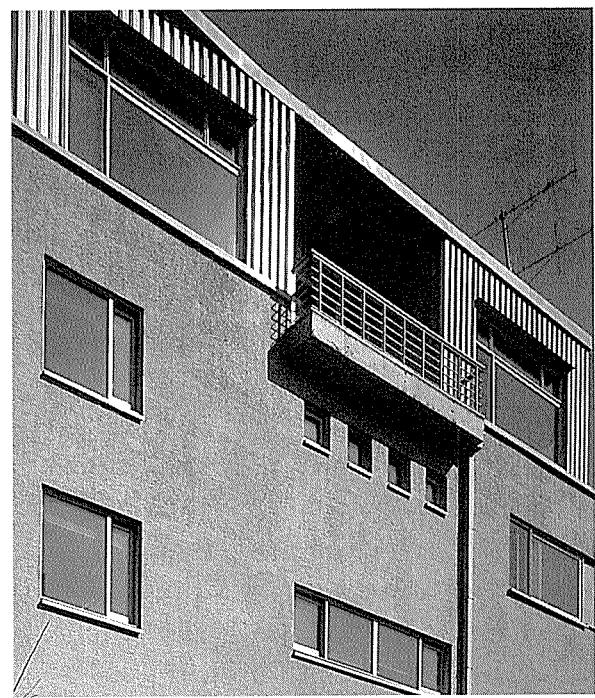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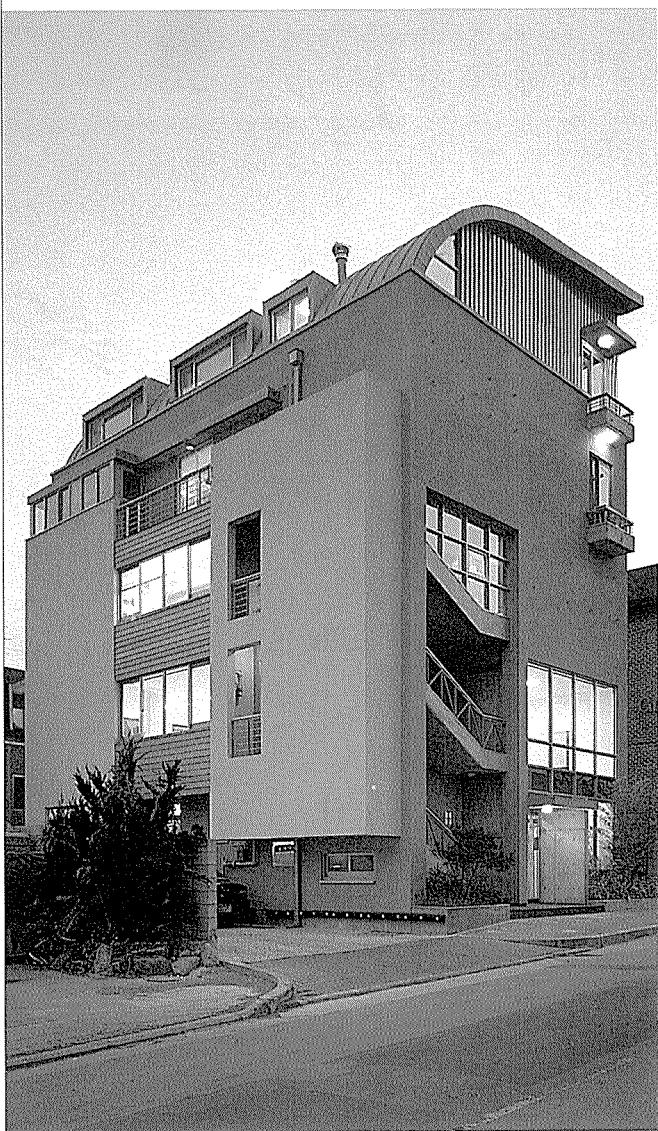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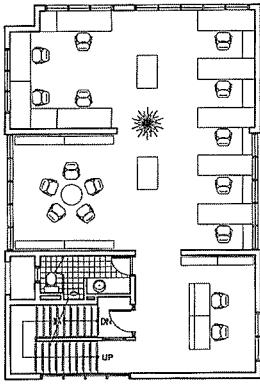


청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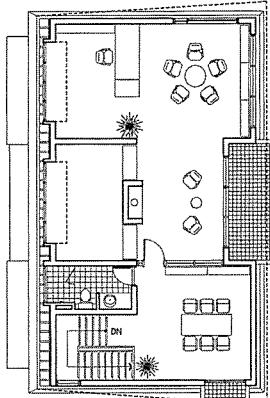
Jace- III

김낙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중원건축
Designed by Kim Nak-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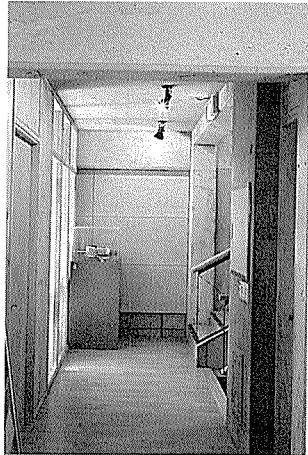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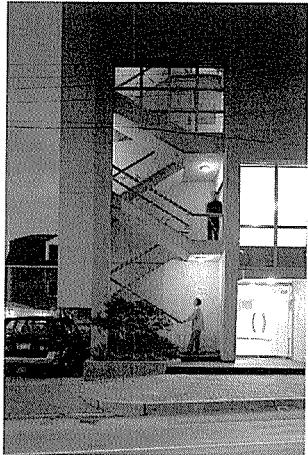
5층 평면도



4층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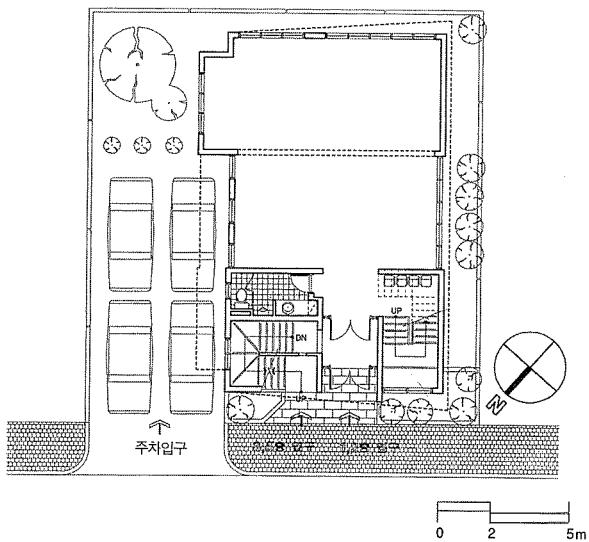
3층 계단실



3, 5층 외부계단실



1, 2층 전용계단실



배치 및 1층 평면도

자신들에 대해, 자신들의 가치에 따라 자신들을 위해 말해 달라고 하는 사물의 무언의 간청들…

- 프란시스 풍수 -

창 밖으로 봄의 풍경이 보인다. 산 능선을 따라 흐르는 신록의 물결이 봄빛으로 반짝인다. 그러나 사실 그 풍경 속에 '봄'은 없다. 있는 것은 연둣빛 잎새들과, 부드러워진 바람, 그리고 새의 소리들이다. 자연은 관대해서 그 풍경 속에 새로운 것들 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을 산 자락의 바위와 흙, 그리고 지난 가을의 흔적인 낙엽도 담고 있다. 봄은 그렇게 생생한 사물들과, 시간과 공간의 여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건축가 김낙중의 스튜디오, 청규현에서 바라보이는 우연산 자락의 모습이다.

봄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처럼 김낙중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은근하다. 청규현의 내·외부를 읽어보면 형태의 논리와 공간의 질 서로 발현되는 건축가의 의지가 먼저 보이지 않는다. 건축가의 의지를 감지하는 대신, 대지의 조건에서 비롯되는 볼륨의 한계와 임대영역과 설계스튜디오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적 해결에 설득된다. 우연산의 풍경이 그렇듯이 그 당위의 설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건축'이 아니라, 사물들과 공간의 여백들이다.

콩자갈이 깔린 주차장에서 시작하여, 마천석으로 된 입구의 스투프, 홍송의 난간대, 미송합판 그대로의 마감 등 건축의 요소로 치환된 재료가 아니라, 건축의 요소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사물들이 당위의 세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리차드 마이어가 건축적인 표현을 위해 재료를 백색으로 질식시켜 살해했다면 청규현의 건축가는 물질들을 건축적 설정 속에 놓았을 뿐 물질, 그 고유한 삶을 살게 한다. 노출 콘크리트 면에 결벽증을 갖고 완벽한 미감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거푸집의 멀을 뛰친 자국, 테이핑 자국까지도 그대로 두어, 작업의 행위와 시간의 간격까지도 캐스팅하는 여유를 보여준다. 그 여유 한편으로 공간의 분할에서 보여지는 치열한 계산과 아연도 동판 지붕과 갈바륨 외벽크래딩의 처리에서 발견되는 장인적인 탐구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한 탐구와 계산이 관용의 그릇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건축가가 짜 놓은 판에 공간과 재료들이 스스럼없이 놓이면서 투박함이 주는 편안함을 누리게 해준다. 관용의 미덕은 재료의 배치뿐 아니라 공간의 관계 속에서도 보인다. 건축가의 스튜디오로 오르는 계단은 지붕 아래 있지만 외부로 열려있다. 오르는 경향 속에서 도시와 자연의 풍경을 번갈아 만나게 된다. 스튜디오라는 목적지로 안내하는 계단이 아니라 오르는 방향이 몇 번 바뀌면서 건축과 도시와 자연을 누리게 하는 너그러운 장치인 것이다. 그러한 설정은 내부에서도 계속된다. 작업실의 곡면 천장은 자연을 향해 완결되지 않은 지붕의 곡률을 투사하고, 그 아래 창의 프레임으로는 산자락의 풍경이 터질 듯 잡혀온다. 그리고 그 내부는 테라스와 발코니로 이어져 외부와 다시금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청규현의 스튜디오는 건축가의 자폐적인 소우주가 아니라 도시와 자연과 함께 하는 너그러운 마당이다.(글: 경영위치 김승희)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2-4

대지면적 230m²

건축면적 120m²

연면적 530m²

건폐율 52%

용적률 216%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구조 R.C. 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콘크리트블럭